

제29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 축 사



2022. 10. 26.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세계한인법률가회 이재욱 회장님과 사비나 한 (Sabina Han) 회장님, 그리고 세계 각국의 한인 법률가 여러분!

세계한인법률가회 제29차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으로 열리는 총회 및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88년 제1차 총회를 개최한 이래, 세계한인법률가회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법률가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선도하고, 세계 한인 법률가들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해외 입양인을 위한 활동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한인법률가회가 한인법률가들의 교류와 유대감 강화를 통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포함합니다.

존경하는 한인법률가 여러분!

지난 2년 여 동안 세계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플랫폼 기반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맞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은 우리들의 사고와 생활방식, 문화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이전의 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Resilience’ 라는 이번 총회의 주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적인 능력과 재외한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정보를 나눈다면, 변화하는 시대 전체

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법률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소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국제적 경제위기와 지역 간 분쟁,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초연결시대에 인류가 당면한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계 법률가들의 시대적 소명과 책무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의 이념과 가치 중 하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 민주적 질서가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보장,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노력이 쌓일수록 국경을 넘는 교류와 협력의 장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제도와 헌법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정의라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의 개별성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계속될 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거센 변화마저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인 법률가 여러분들의 노력은 위기의 시대에서 새로운 조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크나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원 여러분!

이번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걸맞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법률가의 역할 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 소수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규범의 정립에 대한 지혜와 경험도 공유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총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세계한인법률  
가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